

“남편과 자식 둘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.”

- 남편과 자식의 사망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
윤복희(가명)어르신 이야기 -

어르신은 오늘도 동이 트기도 전에 폐지를 주우러 집을 나섭니다. 평생을 일만 해서 무릎이 좋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세 남매를 낳고 아이들을 위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.

남편과도 사별하고, 딸은 10년 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했습니다. 몇 해 전에는 둘째 아들마저 급성 간질환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. 금쪽같은 아이들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.

그런데 하나 남은 큰 아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. 최근에는 피를 토하며 병원에 입원해 또 무슨 안좋은 일이 생길까 심장이 쪼그라들 지경입니다. 돈이 없어 마음 놓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도 힘듭니다.

경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세요.

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윤복희님의 생계비로 지원되며
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
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